

이란 철강산업, 경제제재 해제 이후 위협요인 부각과 시사점

임정성 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jsimm@posri.re.kr)

목차

1. 핵협상 타결 후 기대에 못미친 경제회복
2. 저항경제 하 이란 철강산업의 성장
3. 이란 철강산업이 직면한 기회와 위협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2016년 1월 경제제재 해제 불구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실망감이 고조
 - 이란정부가 금융제재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에 불만을 나타내는 반면 對러시아 관계를 강화해 향후 중동정세 변화 가능성도 존재
- ‘저항경제’에서도 철강산업을 지속 육성해 왔던 이란정부는 최근 2025년 ‘55백만 톤의 생산능력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 중
 - 핵협상 타결 후 지속된 이란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목표 실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란 철강산업은 앞으로 다양한 기회 및 위협요인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이란 철강산업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는
 - 역내 주요국 대비 양호한 철강내수 증가: 연평균 5~8% 증가하여 2025년 34~40백만 톤의 철강수요 예상
 - 원·연료 보유 등 저원가 생산 요소: 철광석 자급 가능, 세계 1위 천연가스 매장국으로 가스·전기 비용 매우 저렴
 - 준국영 철강사들의 저렴한 톤당 투자비: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역량 우수
 - WTO 미가입 상태로 강한 내수시장 보호: 관세·비관세 장벽 적극 활용
- 이란 철강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는
 - 유틸리티 공급부족 가능성: 용수 부족, 가스·전기 네트워크 가설 지연
 - 인프라 부족 심화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 철도, 도로, 심해항만 등
 - 고이자율과 외국자본 유입 저조로 투자 실행 한계: 은행부문 부실화 심각
 - 수출시장에서 경쟁 불가피 반면, 경쟁력 취약: 원가·품질·판매서비스 열위
- 이란의 2025년 철강능력 규모는 내수 성장률과 외국인자본 유입 수준, 열악한 인프라 상황과 수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0백만 톤 전후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철강생산 가동률이 50~70%에 불과해 이란 정부도 당분간은 광산 개발과 펄렛, DRI 등 철광석 가공설비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한국 철강업계는 내수부진 타개책으로 이란시장에서 사업기회를 모색 중인데, 이란정부 주도의 장기목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이란의 국가 특성과 사업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출 또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1. 핵협상 타결 후 기대에 못미친 경제회복

□ 금년 1월 핵관련 경제제재가 해제되었지만, 기대와 달리 이란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음

- 경제성장률은 2015-16 회계년도에 0.9%를 기록한 후 금년 들어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미약한 수준
 - 로하니 대통령은 최근 대중연설에서 핵협상 타결로 2016년 1분기(3.20.~6.20.) 4.4% 성장했으며, 금년 5% 성장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석유가스 부문(57% 성장)을 제외한 다른 산업들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팽배
- 이란의 원유 생산과 수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수입도 늘고 있지만, 미국과 사우디간 계속되는 '유가 치킨게임'으로 저유가 상황이 지속
 - 원유생산은 제재 이전의 4.0~4.2백만bpd(barrel per day)에 도달할 때까지 증산을 계속한다는 방침(7월 3.6백만bpd 수준)
 - 원유수출은 금년 7월 2.14백만bpd로 증가했지만 제재 이전의 2.35백만bpd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원유수출 급증에 따라 재정수입이 2배 가량 증가했으나, 국제유가가 U\$40대에 머물러 있어 물량증대 효과가 반감
 - 원유가격이 상당기간 U\$30 아래로 하락할 경우 이란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고 이란 정부도 재정긴축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 (IHS, 2016.7.)

□ 이란정부는 최근 미국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반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중동 정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됨

- 금융제재에 대한 미국의 불확실한 태도로 인해 유럽은행들이 거래 재개를 꺼려 기업들이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를 비난
 -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이 핵합의안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할 경우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도 함
 - 미국 금융기관과 미국인이 이란과의 금융거래 및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1차(Primary) 제재가 여전히 발효 중이며, U\$320억 해외동결자산 반환이 지연되고 있고, 유럽 금융기관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

- 또한 이란 정부는 최근 시리아 공습을 하는 러시아에 하메단 공군기지 사용을 허락해 미국을 자극
 - 항공기 급유 위한 일시적인 시설 공유라고 항변하였지만, 對美 신뢰가 약화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란정부는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Vision 2025인 ‘철강능력 55백만 톤 달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요청해 왔음. 그러나 오랜 건설경기 침체와 저가강재 유입으로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보보다 현재의 공급과잉 해소가 시급한 상황
- 고립상태에서 수입대체와 자립화의 사명을 가졌던 이란 철강업계는 세계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국제경쟁에 노출돼 오히려 ‘위기’에 처함
 - 앞으로도 수출시장은 물론 내수시장에서도 많은 도전 과제들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란 철강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한 분석이 필요

2. 저항경제 下 이란 철강산업의 성장

- 세계 최초로 본격적인 철기시대를 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었던 이란에서 현대적인 철강산업은 1960년대 태동되기 시작함
- 이란 정부는 세계은행 등이 사업성 부족으로 일관밀 건설계획 지원을 거절하자 1965년 구소련과 가스공급 대가로 자본·기술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
 - 1967년 중부지역에 Esfahan Steel을 설립하고 고로 일관제철소를 건설, 1971년부터 봉형강류 제품 생산을 개시
 - 이로써 이란은 1974년부터 이집트를 제치고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조강생산 국가로 부상
 - 1979년 이란혁명 직후 발발한 이라크와의 8년 전쟁으로 1982년부터 10년간 이집트에 1위 자리를 내주었으나, 1992년 탈환
- 이란혁명 이후 국영화된 철강산업은 NISCO(National Iranian Steel Industries Co.) 아래 통합되어 능력 확장과 신설 프로젝트를 동시 추진
 - 자주·자립·자급의 국가기조 정책 아래 철강산업도 봉형강류, 후판, 파이프, 열연, 냉연, 도금 등을 위한 설비투자를 차례로 실행

- 특히 이란 철강산업은 1991년 이태리 컨소시엄의 협력 아래 판재류 생산 일관철강사인 모바라케 스틸(Mobarakeh Steel)을 건설하면서 일대 도약을 이룸
 - 8년간의 전쟁 후 피폐된 국가 재건을 위해 이란 최대 산업 프로젝트로서 모바라케제철소 건설을 추진
 - 신기술인 Gas based DRI~EAF 프로세스를 도입했는데, 이는 코크스탄과 철스크랩 부족으로 기존 Esfahan Steel 프로세스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

□ 이란정부는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받았던 ‘저항경제’ 하에서도 철강산업을 지속 육성하여 MENA 1위 철강국가의 위상을 굳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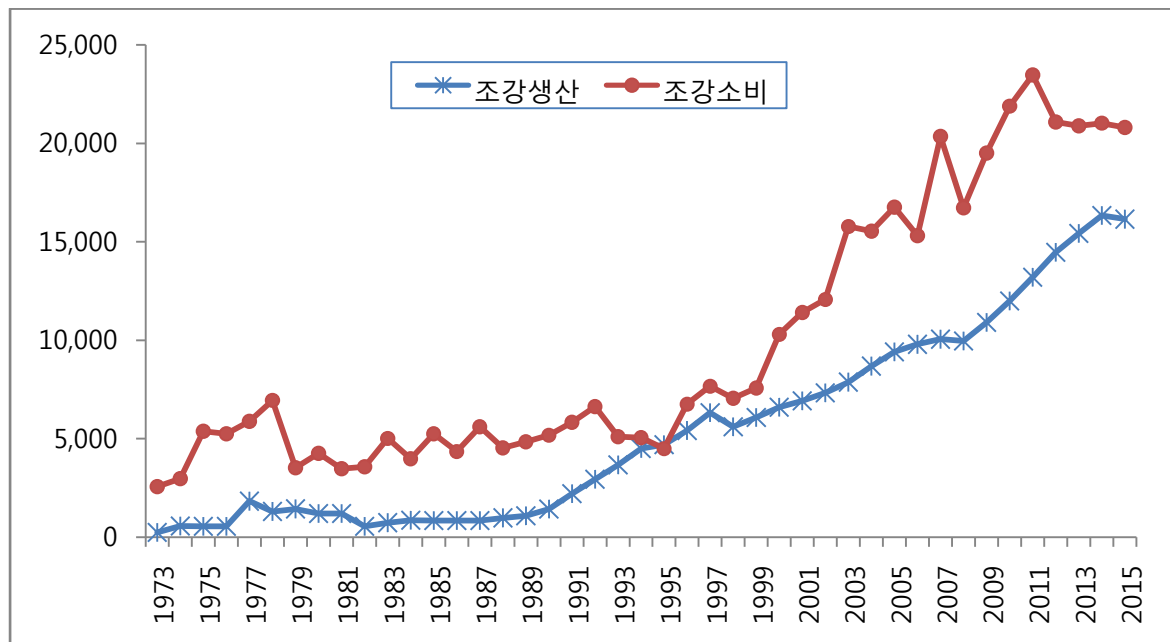
○ 조강생산은 2015년 16백만 톤으로 세계 14위(1991년 대비 7.3배 증가)

- 철강사별로도 모바라케 스틸이 2015년 7.15백만 톤의 조강을 생산해 1위 위상을 차지(사우디 Hadeed 5.2백만 톤, 이집트 Ezz 3.3백만 톤)

○ 조강소비 규모는 경제회복 지연으로 2012년 이후 성장 정체 불구, MENA 2위인 사우디에 비해 1.4배에 달함(1991년 대비 3.6배 증가)

- 철강 자급도 향상과 내수 부진으로 수입규모는 과거(2006~2011년 연평균 9백만 톤 이상) 대비 감소한 반면, 철강수출은 증가세

〈이란의 조강수급 장기추이〉(천톤)



자료: WSA

〈MENA 지역 주요국가의 철강수급 현황(2015)〉 (천톤)

	이란	사우디	이집트	UAE
조강생산	16,146	5,229	5,506	3,006
조강명목소비	20,800	14,000	11,622	7,959
철강수입	5,107	6,490	7,897	6,612

자료: WSA

3. 이란 철강산업이 직면한 기회와 위협

□ 2004년 이란정부는 20년 장기계획으로 Vision 2025를 수립한 바 있는데, 철강분야에서는 ‘55백만 톤 능력확보’를 목표로 제시

- 핵협상 타결 이후 IMIDRO(국영 철강·금속산업 지주회사)는 비전 달성 위해 3개 일관밀 신설을 계획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 남부지역 PSEZ(Assaluyeh, 1.6백만 톤), PGSEZ(Bandar Abbas, 5.0백만 톤), CFZ(Chabahar, 5.0백만 톤) 특별구역에서 신규 제철소 건설을 계획
- 금년 1월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 철강산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이란 국내외에서 논쟁이 가열
 - 미국 WSD(World Steel Dynamics), 우크라이나 Metal Expert, 이란 Foolad Technic International Engineering Co. 등이 관련 보고서를 발표
 - 대체로 전문가들은 2004년 이란정부의 목표는 너무 의욕적이었으며 최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 이에 IMIDRO는 2025년 내수 전망을 50백만 톤에서 34백만 톤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수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
 - 따라서 이란 철강산업이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직면하게 되는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기회요인①: 역내 주요국 대비 양호한 철강내수 증가 예상

- 핵협상 합의안 파기에 따른 경제제재 복원(snapback)이 없을 경우, 이란은 2025년까지 연평균 4.5%의 안정적 경제성장이 예상 (IHS, 2016.7.)

- 2016~2025년 성장률 전망: 사우디 3.6%/년, UAE 3.5%, 이집트 4.5%

○ 철강내수는 석유가스부문과 건설경기 회복, 자동차 등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2025년까지 연평균 5~8% 성장 예상

- 이란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포함하여 철강소비 부진과 침체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향후 가장 유력한 유망시장 중 하나로 부상 예상

〈이란의 장기 철강수요 전망〉(백만 톤)

	POSRI	WSD	Foolad Technic Int'l Engineering
2025 년 수요	35(조강기준)	35~40	34
연평균 증가율	5.3%	6~8%	6.1%

□ 기회요인②: 원료와 연료 보유 등 저원가 생산 요소 확보

○ WSD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모바라케 스틸의 HR band 제조원가가 U\$290에 불과하여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모바라케 스틸의 원가경쟁력은 중부지역 광산에서 U\$20/톤에 조달받는 철광석과 저렴한 가스비와 전기료, 경영진의 리더십에 기인
 - 1~3위 국영 철광석업체에 지분 참여 통해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하고 있으며, 최근 북동부 Sangam 지역에서는 직접 철광석 가공공장에 투자 중
 - 이란은 세계 1위 천연가스 매장국으로 가스(백만BTU당 약 U\$1.35)와 전기(kWh당 2센트 미만)를 매우 저렴하게 공급

○ 이란은 MENA 지역 최대의 철광석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중부(Yazd, Chardormalu)와 북동부(Sangam) 지역에 걸쳐 광맥이 분포

- 매장량은 Proven Reserves 기준으로 25억 톤(Fe 51% 수준), Resources 기준으로 45~50억 톤 수준
 - 대부분 분광형태, 인·황 등 불순물이 많은 자철광으로 정광(concentrate)이나 펠렛으로 가공 사용하거나 호주/브라질 산과 블렌딩 사용

○ 최근 IMIDRO는 Vision 2025 달성 위해 철광석 광산개발과 함께 정광, 펠렛, DRI 공장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음

- 55백만 톤 철강생산체제 확보 위해 2014년 실적과 2025년 목표치를 비교하면, 철광석 48백만→154백만 톤, 정광 24백만→66.2백만 톤, 펠렛

21백만→54.6백만 톤, DRI 16백만→54.6백만 톤으로 생산 확대 필요 판단

- 장기적으로 철광석 고갈 시 아프간과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조달 가능

□ 기회요인③: 준국영 철강사들의 저렴한 톤당 투자비

○ 준국영 철강사들은 대부분 단계별로 능력 증강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톤당 투자비 면에서 신설투자 대비 이점 보유

- 증설(Brownfield) 투자는 기확보한 부지 이용, 기존 유틸리티 시설 공유, 축적한 기술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음
- 경제제재 하에서 기술과 역량 자립 노력으로 중국 이외 서방 세계의 어느 국가보다 짧은 기간에 낮은 원가로 제철소 건설이 가능(WSD)
 - 이란은 DRI Mega Module을 자체 개발(PERED®)했으며, 모바라케 스틸은 펄렛·DRI·연주 부문 등에서 설비 자립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

○ 이란 조강생산의 50% 이상을 맡고 있는 모바라케 스틸은 BF 투자의 장점을 활용, 금년 내 10.3백만 톤, 2025년 25백만 톤까지 확장할 계획

- 모바라케 스틸은 자체 제철소 능력 증강과 함께 2006년부터 5개 부설기업 인수로 인해 능력이 급증(현재 각각 확대계획 추진 중)
 - 제강능력: 모바라케(5.4→7.2백만 톤, '16년), SABA('06년 인수, 0.7→1.6, '16년), Hormozgan ('10년 인수, 1.5→3.0, '19년), Sefiddasht('14년 인수, 0→1.0, '18년)
 - 열연능력: 모바라케(No.2 열연, 3백만 톤, '19년), Hormozgan(3백만 톤, '20년)

□ 기회요인④: WTO 미가입 상태로 필요시 강한 내수시장 보호 가능

○ 이란은 WTO 미가입 상태(옵서버 국가)로 국내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필요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임의로 설정하고 변경 가능

- 2015년 7월 모바라케 스틸은 경기부진 상태에서 중국산 등 저가 수입재 급증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정부에 열연 25%, 냉연 30%, 도금 35%, 칼라강판 40%까지 관세 인상을 요구
 - 이에 대해 이란정부는 금년 3월 20일부로 빌렛 등 반제품은 10% → 15%, 봉형강류는 20% → 26%, 판재류는 10% → 20~26%로 인상 단행
 - 2015년 이란은 중국의 8위 철강수출 대상국이었으며, 중국산은 이란 수입시장에서 46% 점유율 차지(수입량 2.1백만 톤, 43% 증가, ISSB 기준)

□ 위협요인①: 55백만 톤 능력 확보에 유틸리티 공급부족 가능성

- 반건조기후 지대에 있는 이란은 온난화 및 도시인구 급증 등에 따른 영향으로 산업화 확대에 용수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
 - 현재 철강업계는 연간 169백만㎥의 물 소비. 55백만 톤 능력에 370백만 ㎥의 물 소비가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U\$24억의 투자가 요구
 - 기존 철강 클러스터가 형성된 중부지역(이스파한주)까지 담수 처리된 용수 수송을 위해 파이프라인 건설 추진 중(완공 시에도 원가상승 요인)
 - 용수부족 문제로 신규 제철소는 해수 담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남부 연안에 개발 중인 특별구역에 투자 장려(내수 판매에는 물류비 증가요인)
 - 중부지역 철광석 고갈로 북동부 Sangam 광산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철광석 가공 공장을 위한 용수 부족 문제로 능력 확대에 한계 예상
- 국토 균형발전 정책으로 철강공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가스와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
 - 2015년 말 세계 1위 가스매장국(BP 통계기준)이지만 산업체 및 가계에서 소비 증가로 현재 국내소비를 충족하기에도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
 - 향후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가스전 개발이 본격화되더라도 신설되는 경제 특구나 산업공단에 가스파이프 연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
 - 또한 2014년 철강사들은 16.3백만 톤 철강 생산 위해 178억kWh의 전기를 사용했지만, 55백만 톤 능력 가동에는 462억kWh가 필요
 - 발전소 및 송배전 시설 건설 등에 U\$55억의 투자가 이루어져 전력 용량이 연평균 23% 증가해야 하지만, 과거 10년간 성장률은 6.1%에 그침

□ 위협요인②: 인프라 부족 심화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 예상

- 한국의 16배 면적을 가진 이란은 20세기 초반부터 철도망을 부설했지만 경제제재 기간 투자가 중단돼 현재 매우 노후화된 상태
 - 현재 철도는 국영기업이 사용하고 있고, 민간기업은 사용이 거의 불가능
 - 민간기업의 경우 철광석 수출을 위해 북동부 지역 Sangam 지역에서 남부 반다르압바스 항구까지 1,300km를 트럭으로 수송 필요
 - 중부지역 모바라케 제철소에서 Bandar Abbas 항구까지 거리는 905km

- Vision 2025를 위해 철도 연장을 12,800km에서 25,000km로 확대하여 연간 11%씩 성장해야 하지만, 지난 10년간 연평균 3.8% 성장에 그침

- 철강공장들을 전국에 분산시켜 신규 건설한 결과 과다한 육송 물류비 초래

○ 그동안 국제교역이 제한됐던 이란은 심해항만을 개발하지 못해 UAE 두바이항에서 작은 선박으로 환적이 필요(해상수송 코스트 상승요인)

- 페르시아만 항구들은 최대 6만DWT 용량의 선박이 접안 가능한데 국제 수준에 비하면 매우 열위상태

- 세계 주요 철강수출 기업들은 대부분 20~30만DWT 용량의 선박을 이용

- 2025년 최대 20백만 톤까지 철강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심해항만 개발이 절실

- 인도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오만만에 접한 차바하르에서 항만과 산업공단을 개발할 예정인데, 금년 4월 이란정부와 U\$200억 투자 위한 MoU를 체결

- 중부지역 모바라케 제철소에서 Chabahar 항구까지 거리는 1,515km

□ 위협요인③: 高이자율과 외국자본 유입 저조로 투자 실행 한계

○ 오랜 경제제재로 자금이 고갈되는데다 높은 국내 이자율과 철강시황 부진 등으로 당분간 기업들의 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울 전망

- 이란 국내은행의 대출 이자율은 2015년 26%에서 22%로 낮아졌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

- 그 동안 저리 해외조달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앞으로도 일부 신용도가 높은 준국영 철강사 외에는 해외조달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조달 이자율 이상의 수익성이 예상돼야 철강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데, 시황 약세 지속과 수출 경쟁력 취약 시 파이낸싱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

- 모바라케 스틸은 투자자본 확보를 위해 자회사인 Hormozgan Steel의 지분 일부를 외국기업에 매각할 계획

- Esfahan Steel도 국영 연금회사가 보유한 지분 73%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심을 표명한 기업이 없는 상태

- 동사는 노후화된 설비와 높은 생산원가, 많은 종업원수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 왔으며, 부채 규모가 U\$17억에 달함

○ IMIDRO는 55백만 톤 목표달성 위해 철강과 인프라 투자에

U\$250~3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50~60%를 해외자본으로 조달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외국기업들은 관심 표명과 협력 의사만 밝히는 수준으로 실제 투자집행은 하지 않고 있음

- 경제제재 기간에도 이란에서 사업을 지속해온 이태리 설비업체 Danieli가 IMIDRO와 JV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약 2년간의 타당성 검토 후 펄렛·DRI 공장 건설을 결정할 예정
- ArcelorMittal은 민간 Bonab Steel과 5년간 경영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Bonab의 계열사와 광산개발과 철광석 가공분야 협력을 약속
- 일본은 철강연맹 차원에서 물소비 감축을 위한 기술 및 노하우 전수에 협력할 방침이고, 지난 8월 IMIDRO를 방문한 중국 보산강철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의사를 밝힘

□ 위협요인④: 수출시장에서 경쟁 불가피 반면, 경쟁력 취약 예상

- 작년에 이란 철강사들은 극심한 내수부진 타개 위해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사상 최대인 4.1백만 톤(반제품 1.6백만 톤)을 수출
 - 금년에는 6백만 톤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4개월(3.20~7.20)간 전년비 77% 증가한 2백만 톤 이상을 수출
 - 봉형강류 제품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등 인근 국가 중심으로 수출 중
- 모바라케 스틸의 경우 작년에 전년비 21.5% 증가한 1.8백만 톤을 수출했는데, 주로 유럽시장을 공략(열연 중심)
 - 수출 확대의 영향으로 최근 EU와 태국으로부터 열연 반덤핑조사 대상이 되는 등 역풍을 맞음
 - 최근 이태리 Marcegaglia에 연간 최대 90만 톤까지 열연코일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는데, 최대 물량까지 수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25년까지 55백만 톤 능력을 확보해 10~20백만 톤을 수출하는 계획은 앞에서 제기한 위협요인들과 함께 원가경쟁력, 수요가 확보난, 환율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도 가동률 유지를 위해 손실을 보면서 수출 중인데, 수출시장에서 중국·CIS산 강재들과 경쟁하려면 효율성 증대와 원가경쟁력 개선이 필요

- 대책으로서 모바라케 스틸의 솅하니 회장은 이란 철강업계 통합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 제고 필요성을 제기
- 호르무즈간 지역에 있는 6개 철강사(모바라케 스틸 자회사인 Hormozgan Steel 포함)를 통합해 10백만 톤 규모의 철강사 설립 추진을 논의 중
- 여기에다 이란에 외국자본 유입 지속 시 Rial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지면 수출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최근 Rial화 가치하락으로 수출에 유리)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앞으로도 이란정부의 철강산업 육성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당분간은 철강능력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인 광산 개발과 철광석 가공설비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조강가동률 약 70%, 강재가동률 약 50%, 판재류업계 가동률 53% 등으로 당장은 철강능력 확대보다 원활한 원료조달 체제에 관심
- 2025년 철강생산 규모는 내수 성장률과 외국인자본 유입, 인프라 상황, 수출경쟁력 등 고려 시 30백만 톤 전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Steel-Insight는 2021년 조강생산 규모를 21.5백만 톤으로 전망(연평균 +5.1%), WSD는 2025년 36백만 톤 철강생산을 예상(+8.5%/년)
 - Esfahan Steel의 부사장은 2025년까지 국내자본으로 25백만 톤(+3.9%/년)까지 확장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외국자본 참여 없이 힘들 것으로 예상
- 한국 철강업계는 내수부진 타개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고 시장이 다시 열린 이란에서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나, 이란 철강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협요인들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한국철강협회는 금년 3월 이란강관협회와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포스코는 금년 5월 IMIDRO 및 모바라케 스틸과 협력 MoU를 체결
 - 세아특수강은 이란 자동차산업 성장 잠재력에 대응하여 선재공장 투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최근 보도
 - 對이란 수출은 2014년 56만 톤에서 2015년 75만 톤으로 확대(ISSB)

- 중국, 카자흐스탄에 이어 3위 철강수출 국가(점유율 16.5%)
- 이란은 인도 다음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유망시장이지만, 이란 정부가 주도하는 의욕적인 장기목표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
- 이란의 국가 특성과 사업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출 또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단행본/보고서/논문]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6

CRU, "Iranian steel sheet market: local producers poised to expand market share", 2016.7.14

Encyclopedia Iranica, "Steel Industry in Iran", 2016.8.

ISSB, World Steel Export, 2016.

Metal Expert, "Iran in Focus", 2016.6

Platts, "Iran steelmakers look to export market as sanctions to lift", Metals Insight, 2016.1.14.

Steel-Insight, Flat Steel Products Five-year forecast 2016, 2016.7

The Wall Street Journal, "The New Dictators' Club", 2016.8.22.

Wikipedia, "Ferrous metallurgy", 2016.7.

World Steel Dynamics, "Iranian Steel - Ambition, Potential, Reality", Core Report HH, 2016.7

World Steel Dynamics, "Iranian Steel, Steel industry's rising star!", Strategic Insights #73, 2016.4

[홈페이지]

Financial Tribune 신문기사 (<http://financialtribune.com>)

IHS (<http://www.ihs.com>)

IMIDRO (<http://imidro.gov.ir>)

Mobarakeh Steel (<http://en.msc.ir>)

Steel Business Briefing (<http://www.sbb.com>)

World Steel Association (<http://worldsteel.org>)